

대기업 협력업체 ‘꽃피는 봄’ 언제쯤...

광주·전남중기중앙회 지난해 4분기 경영애로 조사

삼성 등 대기업 해외 이전 여파...65.4% “경영난”

동반성장 여건도 지속 악화

광주·전남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 악화가 지속되고 동반성장 여건도 계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단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광주·전남지역 대기업협력업체 경영애로조사’ 결과, 대기업 협력업체 130개사 중 자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나쁘다’(매우 나쁨+다소 나쁨)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높았다. 반면

‘좋다’(다소 좋음, 매우 좋음)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0%)해 전분기 6.2%보다 크게 감소해 지역 경제의 경기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협력업체의 원사업자 거래와 동반성장여건도 악화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 거래 및 동반성장 여건에 대해서는 ‘나쁘다’(매우 나쁨+다소 나쁨)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전분기 45.4%보다 3.1%포인트 상승한 반면, ‘좋다’(다소 좋음+매우 좋음)는 응답은 4.6%로 전분기 10.0%보다 5.4%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자동차, 전기·전자업종 등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의 낮은 납품단가와 납품물량 감소 등 동반성장 여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자사제품의 단가에 대해서는 ‘부정적’(매우 부정적+다소 부정적)이란 응답 비율이 전분기 66.9%에서 70.0%로 증가, 납품단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부정적 인식은 62.3%였다. 또 대기업(원사업자)의 해외이전에 따른 대응방향으로 ‘유휴설비 매각,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44.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신사업진출 등 업종전환’(29.4%), ‘수출 등을 통한 판매처 다각화’(24.0%), ‘브랜드화를 통한 직접판매’(2.0%)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따라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원사업자 해외 등 이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동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4분기 실적조사결과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해외이전 여파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매출감소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시화된 결과”라며 “이제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관료개혁 등을 통해 기존 대기업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경쟁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자구책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1.01 (-9.47)
-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1)
- ↓ 코스닥 613.04 (-10.64)
- ↓ 환율 (USD) 1146.80원 (-11.30)

효성,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 돌파

스판덱스·타이어코드 견인...중공업 실적 개선도 눈길

효성이 1966년 창사 이래 51년 만에 처음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경사를 맞았다.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초고압 변압기 등 ‘1조 클럽’ 기업을 견인한 제품들의 시장 전망도 나쁘지 않아 최근 3세 경영을 시작한 조현준 회장 리더십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효성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163억원을 기록해 전년 9502억원 대비 7% 증가했다고 2일 공시했다.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치인 8.5%를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은 11조9291억원으로 전년 12조4585억원 대비 4.2% 감소했다. 순이익은 4754억원으로 전년 5259억원 대비 9.6% 줄었다.

효성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끈 주역은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초고압 변압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특히 ‘섬유산업의 반도체’라고 불리며 수영복, 스타킹 등에 쓰이는 스판덱스는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자동차 타이어의 핵심 소재인 타이어코드 판매 확대와 중공업 부문 실적 개선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효성은 지난달 16일 새사람탐을 맞이했다. 오너 3세인 조현준 회장이 아버지 조석래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에 올랐다. 같은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 산업계 PG장 겸 전략본부장을 맡은 동생 조현상 사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게 됐다. 조석래 전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등기이사직만 유지했다.

조 회장이 맡기 전인 2012년 효성의 중공업 부문은 2362억원 영업이익자를 기록했다. 2013년에도 40억원 적자를 냈지만 2014년 52억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15년에는 152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효성은 이익 실현분으로 7357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도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가장 낮은 267.2%를 기록했다.

효성 관계자는 “올해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 등을 통해 견조한 사업 실적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보해양조 “제조경쟁 국내 1위·아시아 5위권 진입”

2020년 비전 선포식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장성 생산본부 2017년 킥오프(Kick-Off) 행사에서 ‘2020년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비전 선포식’에서 보해양조(주) 장성 생산본부는 공장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제조경쟁성 국내 1위, 아시아 5위권 내에 진입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장성 생산본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받는 제품 생산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 제조혁신추진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품질 의식, 설비 효율, 인적 효율, 기술 역량 등 4대 부문에서 혁신에 나선다. 체계적인 설비 보전 시스템으로 사고와 고장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품종 생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엔지니어와 라인 작업자 등 공장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해 다기능 숙련도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장 혁신의 일환으로 장성 생산본부는 지난달 11일, 주류와 과실 베이스의 음료 등 총 10종의 식품유형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택)을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제품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해양조(주) 관계자는 “주류 트렌드에 발맞춰 장성 생산본부도 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1차적으로 올해 9월까지 공

장 개선 체계를 마련하고, 이상적인 생산활동과 임직원 단합으로 글로벌 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설 명절에 계란 파동...물가 지난달 2% 상승

설 명절과 달걀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4(2015년=100)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했다.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 전월대비 바나나(10.9%), 풋고추(10.0%), 삼파(8.2%) 등은 하락했으나 달걀(61.4%),호박(28.7%), 보현서비스료(19.5%) 등은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14.9% 각각 상승했다.

신선어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12.6% 각각 상승했으며 신선채소류는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13.7% 각각 올랐다. 특히 신선과일류는 전월대비 4.

3% 전년동월대비 17.6% 각각 상승했다.

전남지역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8(2015년=100)로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 전월대비 상승품목으로는 달걀(46.8%), 보현서비스료(19.5%), 시내버스료(12.1%) 등이었으며 닭고기(5.2%), 수입쇠고기(5.1%), 오징어(3.6%) 등은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0%, 전년동월대비 10.0% 각각 상승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3년안에 승부 납니다!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